

육군사관학교 교가 해설

□ 제 1절

동해수 구비 감아 금수 내 조국 / 유구 푸른 그 슬기 빛발을 돋혀
풍진노도 헤쳐 나갈 배움의 전당 / 무쇠같이 뭉치어진 육사 불꽃은
모진 역사 역역히 은보래 치리

○ 단어 해설

- 유구(悠久) : 아득하게 오래됨
- 빛발 : 힘차게 뻗어 나가는 빛의 기세
- 풍진노도(風塵怒濤) : '세상의 험난한 시련과 도전'을 비유
- 역역(歷歷) : 자취나 기미, 기억 따위가 환히 알 수 있게 또렷하게 나타나는 모양
- 은(銀)보래 : 은빛 물보라

○ 구절 풀이

- 유구 푸른 그 슬기 빛발을 돋혀
'돋혀'는 '돋치다'의 활용형으로 '돋쳐'가 맞는 표현이다.
'돋치다'는 '돋다'의 힘줄말로서 해나 달 따위가 솟아오른 것, 또는 무엇이 겉으로 생겨나오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이 구절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푸르른 육사의 슬기가 힘찬 기세로 밝은 빛처럼 뻗어 나오는 기상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.
- 모진 역사 역역히 은보래 치리
(무쇠같이 뭉친 육사 불꽃은) 모진 역사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, 오히려 은빛 물보라로 또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임을 찬양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.

□ 제 2절

아사달 기리 누려 여기 반만년 / 변함없는 그 기상 하늘을 내쳐
천추만리 바람결에 이야기 하리 / 백사 고쳐 쓰러져도 육사흔이야
가고 오지 않으리 오질 않으리

○ 단어 해설

- 아사달(阿斯達) : 단군이 고조선 개국시 도움으로 정한 지명
- 천추만리(千秋萬里) : 천추는 시간상으로는 천 년, 만 리는 거리상으로 10,000리로서, 시간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긴 세월과 간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먼 거리를 표현

○ 구절 풀이

• 천추만리 바람결에 이야기 하리

‘천추만리’는 오랜 역사와 온 천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. 화자는 천추만리에, 즉 오랜 세월 동안 온 천하에 무언가 자신이 이야기 하고 싶은 바를 바람결에 실어 전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.

• 백사 고쳐 쓰러져도 육사흔이야

‘백사 고쳐 쓰러져도’ 구절은 정몽주가 지은 <단심가>의 ‘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~’의 내용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. 이때 백 번을 다시 죽어 쓰러지는 대상은 ‘육사흔’이 아니라, 육사인의 ‘몸’이라고 보아야 한다. <단심가>에서도 백골이 진토 되어 뉘조차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가 되지만, 임 향한 일편단심의 충성심만큼은 쓰러지지 않는다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다. 즉, 몸은 백 번을 다시 죽어 쓰러져 없어진다 하더라도 육사 정신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.

• 가고 오지 않으리 오질 않으리

한시(漢時)에서 많이 쓰이는 ‘불여귀(不如歸)’ 혹은 ‘거불귀(去不歸)’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. ‘거불귀’, ‘불여귀’라는 시적 표현을 사용한

옛 시들을 참고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해석들이 가능하다. 첫째, 조국을 위해 사지(死地)로 떠나는 육사인의 충정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. 중국 전국시대 진시황을 암살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죽음을 당했던 형가를 기리기 위해 중국 도연명(陶淵明)이 지은 <영형가>에서는 형가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서 장도에 오르는 부분을 묘사하기를 “心知去不歸 且有後世名(심지거불귀 차유후세명 :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 가고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렇지만 후세에 이름을 남기리라)”라고 하였다. 즉, 형가가 대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떠나는 충정의 의기를 ‘거불귀’라는 구절로 표현한 것이다. 둘째, 전장에서 쓰러져 돌아올 수 없는 육사인에 대한 애도와 추모이다. 조선시대 세종, 문종, 단종 3대에 걸쳐 집현전에서 수학했던 조상치는 세조에 의해 폐위된 단종과 그에게 끝까지 충성한 사육신을 추모하며 지은 <봉화단종자규사>라는 시에서 “不如歸不如歸(불여귀불여귀 : 돌아가지 못하리)”라 노래하였다. 셋째, 육사혼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. ‘가고 오다’는 말은 ‘왔다 갔다’한다는 식으로, 변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. 따라서 여기서 ‘가고 오지 않는다’는 것은 백번을 고쳐 죽어도 그 의지가 변함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다. 넷째, 앞으로 전진하고, 뒤로 물러서 돌아오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하겠다.

□ 후렴

아아 영용 영용 이제도 앞에도 한결 같아라
온 누리 소리모아 부르네 그 이름 그 이름 우리 육사

○ 단어 해설

- 영용(英勇) : 빼어나고 용맹함, 보통 무인들을 칭송할대 ‘영용무쌍(英勇無雙)하다’는 의미이다.